야호! 멋진인생

한여름

머나먼 우주로부터의 메세지

때는 바야흐로 2021년, 열돔 현상 속 8월을 맞이하며 아스팔트 위 콘크리트 정글에는 아지랑이들이 싸이트랜스 음악이 마치 눈에 보일 듯이 현란하게 춤을 추고 사람들은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처럼 지구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요즘 가장 유명한 바이러스 코로나19의 추세는 4차 대유행을 일으키며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는데 그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생음악을 들으며 춤추고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지르는 일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항상 이맘때면 예로부터 사람들은 야외에서 생음악 큰잔치(로크 페스티벌)에 모여 외계로부터 수신되는 로크 에너지를 증폭 시켜 크게 들으며 점프(껑충 뛰기)를 하거나 다이빙(뛰어들기), 슬램(남에게 몸 부딪히기), 모쉥핏(이리저리 어슬렁거리며 자유롭게 몸 움직이기), 서클 핏(한국의 강강술래랑 비슷)과 스캥킹(달리듯이 춤추기, 한국의 고속버스 춤이랑 비슷)을 만들며 일상과는 다른 더욱 거친 존재들로 변하여 거칠게 육체를 부딪치며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나아가 아주 약간이지만 지구의 중력에서 벗어나 우주를 느끼게 되는 자유를 맛보곤 하였다.

가령 메인 스테이지의 무대 맨 앞자리에 가보면 군중들의 호흡과 거친 움직임 덕분에 공기도 희박해지는데 사람들이 밀집되어 압력을 받을 때 몸이 부웅 뜨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행동이 구속되는 밀집된 답답함을 상상하겠지만 실제로는 상상과는 다르게 자신의 육체를 가누어야 하는 부담에서 해방되어 중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느끼게 되어 두고두고 생각나는 "부웅~" 뜨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다이빙은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 같은 행동이다. 우리가 살아 숨 쉬는 마더 얼쓰 네이쳐 플래닛에서 물이 아닌 곳에서 다이빙하게 되면 지면 위로 던져진 사람의 육체는 바로 아래 물체에 떨어져 큰 부상을 입게 된다. 하지만 로크 라이브 때 불나방처럼 무대 위로 뛰어올라 거침없이 다이빙하는 사람들의 육체는 아래 바닥이나 물체가 아닌 무대 아래 사람들에게로 떨어지고 그 사람들의 파도를 타며 유영하게 된다. 일상에서의 다이빙이란 결과가 뻔한 일이지만 록 페스티벌에서는 단연 황홀한 경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헤드뱅잉(머리 흔들기)은 요즘 스마트 폰 영향으로 거북목이 되어버린 현대인들에게 C자 커브를 다시 목뼈에 가로 새길 수 있는 너무나도 유익한 행동일 것이다. 좀 무리하게 버닝 해 본다면 다음날 세상 어느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전봇대 같은 자세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헤드뱅잉의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록 페스티벌을 체험해 보면 오래된 인류의 놀이 문화나 주술적 행위, 혹은 전통 축제와도 흡사한 분위기가 있다. 한국에서는 마치 록 페스티벌의 서클핏 과도 같은 옛 전통으로 강강술래가 이미 존재했다. 여럿이 서로 손을 잡고 뱅글뱅글 돌면서 마냥 기분이 좋은 것은, 원심력이라는 우주의 기본적인 힘을 사용하며 태양계 또는 안드로메다 저 멀리 까지 돌고 있는 우주의 흐름에 함께 합류하여 거대한 힘에 일부가 되는 것이기에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 2020 하계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배구팀이 승리했을 때 한데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방방 뛰며 도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분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하면 기분이 좋게 되는 것인지는 이미 중요치 않은 표정을 볼 수 있다. 제자리 점프를 뛰어오를 때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늘로 도약을 반복하는 인간의 행동은 장애물을 피하는 일도 아니며 누군가 시켜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것은 뛰어야겠다 라는 의식이 없으며 오로지 시간의 패턴인 리듬에 동화되어 자기 자신의 육체 전체를 지구에서 들어 올리는 행위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리듬과 멜로디에 생음악을 들으며 방방 뛰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일 것이며 각종 스트레스 해소와 혈액순환을 돕는 것은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덤인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가 모여 록 페스티벌을 할 수는 없지만, 록 영양실조로 몸과 마음이 나약해진 우리들에게 언젠가는 다시 모두 모여 함께 뛰어놀 날이 올 것을 기다리며 ……

<고양시 44세 이주현>



- 목차

머나먼 우주로 부터의 메세지
[특별기고] 축제의 기원 - 트라이포트를 추억하며
[체험수기] 나의 페스티발 연대기
멋진인생 24시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후루꾸상담실 | 그놈은 멋있었다? | 옛날말씀
야호 문예부 | 메아리코너 | 특별부록 뮤직카드

[특별 기고] 축제의 기원 - 트라이포트를 추억하며

성기완

갑자기 노란색이 생각나. 노란 비닐의 색. 왜일까. 트라이포트라는 전설적인 우중락페를 떠올리는 순간 노란색이라니. 생각해 보니 나는 이틀 내내 노란 우비를 입고 있었어. 온 몸이 젖었지만, 그냥, 벗지 않았어. 비닐과 살 사이에서는 땀인지 물인지 아니면 더 진한 분비물인지 모를 흔합 액체가 살갗으로 삼투되다 못해 살은 팅팅 불었었지. 장화도 신었었나. 그건 기억이 안 나. 아마 신었을 거야. 당시에는 대우 자동차의 야적장이었다고 들었어. 그냥 허허벌판. 인천에 어울리는 뻘밭이었어. 주위에는 아무 것도 없었어. 지금의 송도는 솔직히 인천에 안 어울려. 당시 트라이포트 페스티발 현장에는 그냥 벌판에 무대가 있었고 젊은이들이 있었어. 나도 있었고. 나도 젊었었지. 그랬던 거지. 믿어지지 않겠지만 나는 당시 MTV VJ 였어. 에이. 진짜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브이제이를 하느냐고? 나도 몰라. ㅎㅎㅎ. 나는 엠넷 채널에 월세를 내고 기생하던 MTV의 '얼터너티브 네이션 Alternative Nation'이라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브이제이를 함께 맡았었어. 믿어지냐. 무슨 요일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밤 10시에 방송이 나갔지. 나 다음인가 전인가는 윤상씨가 브이제이였고. ㅋㅋㅋ 당시 나는 인디락, 얼터너티브락을 보급하는 최전선 보급병이었어. 사명감, 쩔었지. 아니다 싶은 건 절대 안 내보냈어. 얼터너티브 네이션은 진짜 인디, 얼터너티브, 비주류, 펑크, 테크노… 그런 것들만 내보냈어. 완전 철저했지. 그 프로그램의 담당자였던 나는 트라이포트도 '기자출입증'을 받아서 들어 갔어. 내 옛날 컴퓨터의 파일을 검색해 봤어. 당시 내가 트라이포트의 제작사로 보낸 팩스 문서가 하나 나오네. 와. 맞다. 얼터너티브 네이션 시청자들께 트라이포트 초대권을 상품으로 드렸었어. 인상 깊은 건 당시 공달새 씨가 얼터너티브 네이션을 즐겨보는 시청자였나보네. 엽서 보내서 당첨 됐군. 아마 달새도 현장에 많은 시간을 같이 있었을 거야. 달새는 지금도 페스티벌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지. 잔다린지 뭔지.

그 전설의 페스티벌에 관한 여러 에피소드들은 검색해 보면 나올 거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객관적인 사실들의 기록은 생략할 게. 텐트촌 쪽이었나, 암튼 그 부근으로 물난리가 나서 그 쪽에 있던 애들이 대거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했던 건 확실히 기억나. 텐트촌 쪽에서 자진 않았어. 근데 그 쪽에 아는 애들이 좍 있어서 거기 가서 많이 놀았던 거 같아. 드럭 애들도 있었고. 드럭 애들? 그래. 드럭에서 음악하던 애들 말이야. 크라잉 너트도 거기 있었을 걸. 초등학교로 대피하는 행렬에서 경록이를 본 기억이 나. 확실하진 않아. 그냥 본 거 같아.

다들 아시겠지만 첫 날 공연하고, 둘째날은 다 취소됐지. 사실 둘째날 아침까지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던 거 같아. 확실치는 않지만 그랬던 거 같아. 나는 그 틈을 타서 인천 어디 고급 호텔에 묵고 있던 뮤지션들을 인터뷰하겠다고 나섰어. 페스티벌 현장을 기록해야 하는데 비오는 뻘, 밖에는 화면에 잡히지 않더라구. 어쩐다, 하다가, 그럼 인터뷰를 하자, 했던 거지. MTV 라니까 인터뷰에 응해 주더라구. 기억나는 게 두 팀이야. 하나는 애쉬 Ash 라고 북아일랜든가? 거기서 온 팀이었고 다른 한 팀은 RATM 이었어. 톰 모렐로가 주로 대답했지. 톰이 내 앞에 있는데 괜히 조금 야 이거, 대박인데? 싶긴 했어. 당시 제작에 썼던 캠코더 테이프가 어디 있을텐데. 찾아보면 톰 모렐로와 내가 뭔가 이야기를 주고 받는 화면이 있을 거야. 되도 않는 영어를 씨부리며 저항의 락 어쩌고 물어봤던 거 같아. 내가 노란 비옷을 입고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더니, 호텔 조식을 먹었는지 못먹었는지 약간 잠에서 덜 깬 톰 모렐로가 조금은 귀찮다는 듯 나를 보며 이런 비슷한 말을 했던 거 같아. "역시 MTV야! 비온 티를 낸다 이거지?" 시작부터 앵? 이 놈 봐라. 그럴 거면 인터뷰를 하덜 말던가, 엠티비랑 인터뷰하는 너는 진정 저항의 락커냐? 따질까 싶다가도, 솔직히 영어도 안되고, 따지다가 이거 망치면 나 엿 되는 거고, 이 친구랑 인터뷰하는 건, 누가 뭐래도, 이건 대박이니까, 승질 죽이고, 역시 톰이야! 반체제 락커답네! 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 애썼던 기억이 나. 그 이후로는 열심히 답해주고 아 한국에도 그런 락이 있냐 물어봐주고, 암튼 좀 적극적이었던 거 같아. 한 20분이었나? 딱 지나니까 역시 수퍼스타 답게 조식 먹으러 가더라고. 조식 먹었으면 화장실 가는 거였을 수도 있고. 톰 모렐로 인터뷰하기 전에, 그 호텔이었는지 다른 호텔이었는지, 기억 안나지만 인터뷰했던 애쉬 애들은 착하더라구. 근데 발음이 완전 영국 어디 지방 발음이라 알아듣지는 못하고 걍 끄덕였어. ㅎㅎㅎ. 그래도 대강은 알아들었지. 애쉬 음악 들어봐. 좋아.

이건 개인적인 기억이고, 현장에 있던 우리 모두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딥 퍼플 Deep Purple'이라는 형님들이 계실 거야. 하몬드 오르간 담당의 존 로드 형님은 천국으로 가셨지 벌써. 존 형님이 치던 하몬드 오르간은 그날 물먹고 아마도 그 현장에서 천국으로 갔을 수도 있어. 하이웨이 스탄가, 오르간을 마구 흔들어서 물방을 튀기는 리버브 소리를 내는 대목이 있었는데 그 육중한 오르간을 흔드니까 물방울이 튀기는 게 아니라 물이 좍 나오더라. 스티브 모스는 감전을 무릅쓰고 전광석화 같은 솔로를 하시고. 앵콜곡으로 '스모크 온 더 워터'를 할 때는, 물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온 천지가 물과 물안개와 비의 향연이라 그게 그냥 아스라한 연기었어. 이언 페이스 형님의 스네어 드럼에서는 팔비트 박자에 맞춰서 물방울이 끊임없이 솟아올랐지. 물방울이 아니라 물기둥이야. 그 용오름이 시간을 넘어 공간을 뛰어넘어 페스티벌의 욕망을 한없이 부추기며…

팟! 시간을 뛰어넘어, 2002년 월드컵 때, 시청과 홍대 앞을 누비며 붉은 티셔츠 물결 속에서 밤깊은 줄 모르고 노니다가, 나는 문득 트라이포트에서 본 그 분출하는 물기둥을 떠올렸어. 아, 그 때, 그 빗속에서 피신하던 우리가 이제는 온 천지를 함성으로 가득 메우는 구나. 축제의 공화국이 된 거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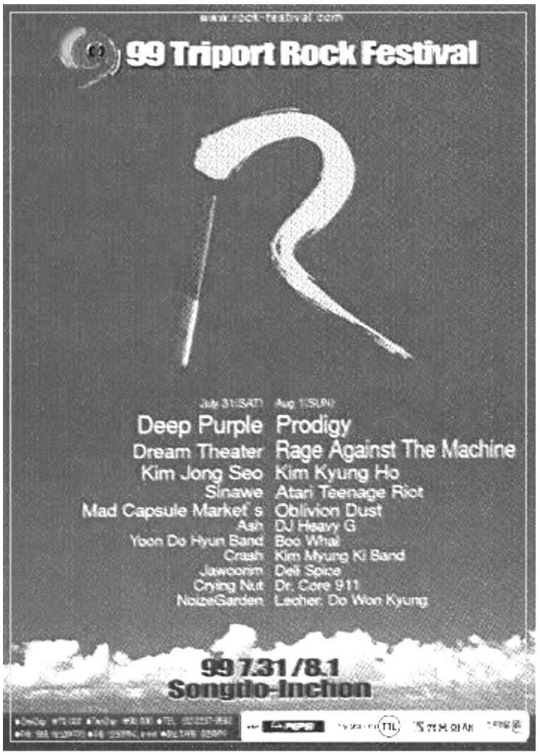
몇 년 후, 트라이포트가 펜타포트라는 어엿한 음악축제가 됐을 때, 나는 시를 썼어. 드디어 그 세대는 페스티벌 제너레이션이 된 거야. <끝>

발신 : 성기완(MTV 얼터너티브 네이션 VJ Producer)
017-325-757*
수신 : 김형*씨(Fax 761-3470)

안녕하세요, 저는 얼터너티브 네이션을 제작, 진행하고 있는 성기완이라고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트라이포트 록 페스티발 당첨자 명단입니다. 티켓은 저희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 프로그램에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첨자 명단입니다.

트라이포트 록 페스티발 티켓 당첨자 명단(가명)

정희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궁전연립 205호(우 120-132)
각선미	부산시 중구 대청동 대청맨션 A-108호(우 600-094)
권용철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267-11 1/9(우 152-093)
이성선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그린빌라 A-808(우 137-030)
진서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우성 A 203-401(우 151-018)
고하연	인천시 서구 가좌 2동 펄 A 102-106(우 404-252)
박유진	인천시 부평구 갈산 2동 호성 A 5-705(우 403-082)
오지홍	서울시 강남구 개포 2동 우성1차 102-702(우 135-242)
문정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삼화빌딩 삼화정보시스템
공달새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50-2 More빌딩 지하



분홍주름 리본 풀어 밤의 리듬을
Unwind the wrinkled pink ribbon into night rhythm

진홍 벨벳 이불 속 당신 하얀 살을
Your white flesh inside a scarlet velvet blanket

녹음방초 대지 위에 만발하게 해요
A field of summer green undergrowth in full bloom

좋았던 때는 지나가기 마련
The good times pass

더 가요 더
More, go, more

높이 더 멀리
Higher, more, further

음악은 우주의 열쇠
Music is the key to the universe

<'시 페스티벌 제네레이션'의 일부>

번역 : 마크브라질


©한겨레

[체험수기 : 나의 페스티벌 연대기] 하이 에이치 아이~ 금번에 야호! 멋진인생에 페스티발의 추억에 관한 글을 쓰게된 망원동 주민입니다. 솜씨는 없지만 글자수를 채워보고자 오래된 외장하드를 열고 사진첩을 들여다 보았습니다만 놀라울 정도로 페스티발 때만큼은 노느라 정신 없었는지 더위를 먹은 건지 남겨둔 것이 없어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기특하게도(?) 입장 팔찌나 타임테이블 같은 것들을 남겨두어 조금이나마 더듬더듬 몇 자라도 적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바야흐로 2021년 세계는 코로나의 기세에 눌려 당연시 하던 것들을 오랫동안 놓치는 기간을 보내고 있지요. 그 당연했던 옛 추억을 벗삼아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적어봅니다.

1 쌈지 싸운드 페스티벌 - 2004년 / 성균관대학교 운동장

전설로 회자되는 트라이포트 페스티발 이후, 쌈싸페는 펜타포트와 지산밸리록 페스티발이 생기기 전 존재하던 (부산락페를 제외하면)얼마 되지 않는 큰 규모의 음악 페스티벌중 하나였고, lml락lml 덕후이자 lml락lml메탈lml 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갓 고등학교에 입학한 당시의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02년 당시 25만원을 호가하던 삼성의 yepp MP3 (128MB)를, 엄마가 사주면 성가대에 성실히 임하겠노라는 당돌한 구라를 쳐 얻어낸 저는 그야말로 수년간 음악에 미쳐 있었고, 조금씩 홍대 라이브공연을 (빵, 슬러거, 와스프, 퀸, 롤링스톤즈, 긱 라이브홀 등 ㅇㅏ 추억이여,,,!) 다니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과는 멀어져 갔지만,, 어렵게 표를 구하고 운동장에 발을 내딛던 순간은?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너무 어렸다! 하지만 당시 라인업에 등장한 할로우잰, 일본에서 건너온 폴리식스 등을 본 충격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장장 8시간을 펜스 옆에서 방방 뛰며 보느라 지치는 줄도 몰랐던,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지금은 체력 거지! 이듬해 한양대에서 진행된 쌈싸페도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해에는 어어부 프로젝트를 처음 보았었죠. 지금 봐도 쌈싸페의 라인업은 증말 쟁쟁한 것 같습니다. 숨은 고수로 등장했던 밴드들이 지금은 거장(?)이 된 모습도 재미있죠. 그때가 그립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라 다 재밌기만 했던 순간들!

2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 2008년 / 인천

폴리식스의 영향이었을까요? 락부심에 더해 전자음악에도 빠지게 되었고, 이는 (추억의) 월디페, 넥스트플로어, 글로벌개더링코리아, UMF, 5tardium등에 참여하고 20대 시절 저녁은 라이브 공연, 밤에는 클럽으로 향하는 수많은 주말 밤들로 이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래서 내가 돈이 없나 싶기도 하네요! 2008년 펜타포트의 라인업에는 언더월드가 있었습니다. 음악덕후라면 필수인 영화 트레인스포팅을 보고 나서 츄즈유얼라이프를 읊조려 보지 않거나 수록곡 중 하나인 언더월드의 본슬리피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불합격 입니다. 여하튼, 언더월드와 트레비스와 그 밖의 멋진 팀들을 놓칠 수 없었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친구의 친구를 통해 행사장 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돈도 벌고 페스티벌도 적당히 즐길 수 있는 1석 2조의 경험이었습니다. 언더월드는 미쳤었죠! 10년도 더 된 일이니 어렴풋하지만, 쌈싸페보다 큰 규모의 조금 더 페스티벌스러운 (먹고 마시고 즐길 거리, 서브스테이지 등등)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 이런 축제는 빠지고 싶지 않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펜타포트와 밸리록 페스티발을 개근하다시피 했었고 집에 있는 입장팔찌가 이를 증명합니다. 펜타포트와 지산밸리의 라인업 경쟁 (자본이 자웅을 겨루는 것을 보는 기분)을 보는 재미도 있었죠. 진흙탕에 궂은 날씨와 더위, 수많은 모기바이트가 있었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내 나이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3 지산밸리 록 페스티벌 - 2012년 / 지산

락덕후들이 입문용(또는 스테디하게)으로 듣는 밴드를 몇 꼽자면,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송 100곡에 3개는 들어갈 비틀즈, 엔터쌘드맨의 메탈리카, 중학교 때 밴드부 하는 친구가 있다면 무조건 카피하는 스멜스어쩌구의 너바나, 배철수 음악캠프 오프닝의 롤링스톤즈, 맨체스터 최강 아웃풋 원더월의 오아시스, LP바 신청곡 탑에 꼽히는 크립의 라디오헤드 등등이 있습니다. 2012년의 지산의 금요일에는 드디어 라디오헤드가 라인업에 등장합니다. 공연은 (내 최애는 1,2집인데 ㅠ) 3집 이후의 곡들로 이뤄졌지만 버킷리스트 하나를 채운 기분이었습니다. 잔잔바리 곡이 많아 먼 발치서 친구와 드러누워 기분 좋게 듣던 기억이 납니다. 이 때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 좋은 기분이 귀갓길에서도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혼자 살던 남친집에 새벽 2시쯤 도착하자 런던올림픽 오프닝이 막 시작했기 때문이죠. 집에 들어선 순간 울리는 블루먼데이라니! 2012 런던올림픽 오프닝 세레모니는 지금도 몇 년에 한번씩 볼 정도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가득인데 라디오헤드를 보고 온 기분으로 시청하니 뭔가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도 올림픽이 한창이지만 런던의 오프닝을 능가하는 세레모니는 아직 이후로 본적이 없네요.

4 썸머소닉 페스티벌 - 2012년 / 오사카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저는 자타공인 조이디비전/뉴오더 덕후입니다. 2012년 썸머소닉 라인업에 뉴오더가 떴을 때의 나는 'shut up and take my (얼마 없는) money' 였습니다. 당시 해외에는 나가보지 못한 상태라 그야말로 온갖 호들갑 난리법석을 떨며 여권을 만들고 항공권 기타 등등을 예매한 귀여운 시절이 떠오릅니다. 당시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다음 해라 약간은 조심스러웠지만, 나의 뉴오더가 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일본행 비행기 탑승을 하루하루 꼽던 기억이 나네요. 웃기게도 섬머소닉 3일전 한국에서는 슈퍼소닉이라는 자매(?)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본래 보려던 뉴오더와 티어스포피어스가 섭외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둘 다 가서 그 해 두 번 보았네요. 섬머소닉의 인상은, 와 시팔 존나 덥다 였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여름은 아무것도 아닌 습도와 더위에 여기서 쓰러질 것만 같았던 아찔한 기억이 남습니다. 하지만 라인업(아니내가리한나와카디건스와칼빈해리스등등을하루만에보다니미친), 부대시설, 식음료 등등 날씨를 제외한 모든 것이 한국의 그것보다 쾌적하고 좋았기에, 일본의 음악적 國力이 몹시도 부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2020년에 뉴오더의 來日공연표를 사두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었으니 보고 오길 참 잘했다 싶습니다. 우리 뉴오더언니오빠들도 나도 이젠 건강 챙겨야 할 때입니다..! 살아서 만납시다!



그 밖의 다시 가고 싶은 곳들과 가보고 싶은 곳들

1 서울 인기 페스티벌 - 서울인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입니다. 서울인기 1회의 가장 첫번째 DJ가 모스피란이기 때문에 (보신 분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서울인기는 무지막지하게 더운 여름에 열리지만, 로컬 숍들의 작품들과 먹거리와 마실 거리가 있고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온갖 아는 얼굴들을 만난다는 점, 서울러 프렌들리한 위치까지, 이래저래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부디 근 시일 내에 다시 개최되길 바라요. 코로나 뻐큐凸

2 잔다리페스타 - Support your local! 체력이 된다면 홍대의 클럽 곳곳을 갈 수 있었죠. 한국의 음악매니아라면 잔다리 아닌가? 역시 코로나 뻐큐ㅗ

3 뉴제너레이션오브스카 - 늦깎이 투톤 스카 팬으로써 더더욱 그리워짐 흑흑.. 신촌 한복판에서 스캥킹 추고싶다!

4 Sun and Bass - 이탈리아 사르데냐섬 - 8박 9일간 day & night으로 열리는 Drum and Bass 페스티벌입니다. 2017년도에 경험하고 왔는데 내 인생 최고로 꼽는 순간입니다. 매일 왕복 2시간 걸어서 무릎이 아작날 뻔 했지만 지중해 바닷가에서 듣는 디앤비 최고!

5 Let it roll / 체코 프라하 - 조지고 부시는 뉴로펑크 Ram records 주최의 DnB 페스티발 - 가고파

6 Hospitality in the Park / 영국 런던 - 리키드펑크 Hospital records 주최의 페스티벌 DnB 페스티발 - 여기도 가고파

7 코첼라 / 미국 캘리포니아 – 클래식! 코로나 아니었으면 작년에 갔을 듯! 다시 재개장 한다면 실크소닉이 원탑 헤드라이너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8 글래스톤베리 / 영국 서머셋 -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그곳 글라스톤브리. 작년이 50주년이었는데!

9 한국에서 열리는 레게, 메탈, 하드코어, 펑크 페스티벌 -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10 넥스트플로어 때의 펜듈럼 - 비가 무섭듯이 내렸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었던 추억! 축제는 난지도가 제일 좋더라,,

11 인펙티드 머쉬룸의 라이브셋 – 6번째로 보고싶다. 싸이트랜스 대표 수출국 이스라엘!

12 다시는 볼 수 없을 프로디지와 모터헤드의 공연.

13 광명 밸리 음악축제 - 다크트랭퀼리티의 내한이 있었던 페스티벌! 싸인도 받았는데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14 부산락페 - 라떼는 부락이 최고였던 시절도 있었고, 전설의 레전드 메탈밴드들을 많이 볼 수 있던 축제죠. Rage, Kreator, Arch Enemy, Cannibal Corpse, Deicide 등 옛 라인업 최고!

15 선셋라이브 / 일본 후쿠오카 - 자이온보트의 심 모 사장님이 매년 가셨다는 꿰게 페스티발 넘 궁금하다!

16 케미컬브라더스의 라이브셋 – 시각적 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세계 최고의 팀이 아닐 수 없음

17 일본의 후지록 – 섬머소닉을 가봤으니 도장깨고 싶습니다.

18 라우드파크(프랑스) & 헬페스트(일본) - 메탈헤즈에겐 천국이겠지,,

19 시간여행으로 우드스탁 또는 영국 미국의 옛 축제 - 도어즈나 지미헨드릭스 데이빗 보위 킹크스등을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0 페스티벌은 아니지만 80년대 맨체스터의 하시엔다 - 레이브의 정점이었던 곳! 늘 상상만 해봄

21 라떼라떼~ 페스티벌은 아니지만 2000~2010년대 홍대 클럽 라이브들 -

이상 저의 추억82 및 희망사항 등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 비와이이~ **망원동2냥집사**

야호! 멋진인생 속 멋진인생

<지난 이야기>

박상권 선생은 알고보니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라서 한국 육군에 입대 한 후 전역을 하게 되는데…

농간

농간
오늘은 그대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으리라
다짐 했건만

The Game

The Game
Today in your game
I shall not play
This I swear

번역 : 마크브라질



"2009년 겨울의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2년 전 브라질에서 대한민주공화국으로 입국한 '하다가쓰 나갈레로'
1994년 브라질 상사우바도르다바이아지토두스우스상투스에서 태어났다.
중산층이었던 그의 집안은 손쉽게 음악교육을 받기 수월했고 사립초등학교 음악 교사였던 '호나우두 루이스 나자리우 지리마' 에게서 퍼커션 교육을 받았다. 아시아계 혼혈이었던 그는 빈민층 사람들에게 오히려 차별받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때 중학생 때 일화를 한번 들어보자.

"역시 현지인이 만든 슈하스코는 최고구만!" 하며 연실 감탄하고 나가던 외국인들이 주방을 쳐다봤는데 혼혈인 하다가쓰 나갈레로가 아르바이트로 만들고 있었다.

성인이 된 하다가쓰는 차별받는 사회, 다른 것이 틀린 것이라 인정되는 것이 싫었다. 그는 남들과 달랐다. 피부, 말투, 심지어 좋아하는 축구선수마저.
그는 리오넬 메시를 좋아했는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외교 상황은 심각했기에 그런 사실을 주변에서 알면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 브라질의 치안에 대한 또 한 가지 일화를 들어보자

"헤이! 하다가쓰. 브라질에서도 총소리 낼 때 빵빵 이런 소리를 내는가?"
"오우, 노, 드르륵"

인터넷을 보던 그는 한국에서의 '메호대전'을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아르헨티나보다 메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차별 없는 국가였던 것이다.
대양을 넘어야 하는 큰 결심을 한 하다가쓰.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박상권 선생과 키타키타키타 GOGOGO



첫 코드는 E코드이다. E코드는 기타리스트들에겐 젓가락질과 같다. 이 코드를 연주할 때는 '모든 것을 보여주리라'라는 마음을 담아서 줄을 울려야 온전한 코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 오른손은 비장함을 가지고 한타 한타 절도있게 연주해야 하며 다음 코드로 가기 전에 충분한 심호흡과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가 되었을 때 왼손과 오른손을 한마음으로 연주를 해야 올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자, 그럼 한번 연주해보도록 하자!

야호! 문예부

내가 바다를 사랑하는 이유

눈 부신 태양, 시원하게 부서지는 파도, 물속에 일렁이는 빛 그림자, 멀리 펼쳐진 수평선, 반짝이는 윤슬… 수많은 미디어로부터 학습된 이런 아름다운 클리쉐들이 바다엔 정말로 있다. 하지만 내가 바다를 사랑하는 이유는, 바다가 지구를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바다에 몸을 담그고 그대로 누워 온몸의 힘을 뺀다. 이렇게 둥둥 떠보면 평소 발바닥으로만 닿아있던 지구의 물성을 온몸으로 만날 수 있다. 물속에선 중력을 거슬러 부유하며, 발끝부터 손끝까지 내 몸을 통해 지구를 감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눈을 감고 둥실거리는 파도를 통해 바람과 달의 힘이 지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가만히 느껴보면, 지구는 살아 숨을 쉬고 있고 나는 그 안에 속한 하나의 유기체임이 분명해진다. 게다가 지구엔 바다가 하나이다. 제주도의 세화 바다도 인도의 아람볼 비치도 페루 리마의 바다도 태국 코팡안의 바다도 결국 커다란 하나의 바다가 인간이 구획해놓은 땅에 맞닿은 부분일 뿐이다. 바다는 결국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내 눈앞의 바다가 어디의 어떤 바다인들 풍덩 뛰어들기만 한다면, 나는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내가 몸을 담그고 있는 이 바다가 사실 몇 번이고 만났던 바로 그 바다였음을 감각적으로 납득하며 난 한 국인이기 이전에 지구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국적, 성별, 인종,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서로에게 선을 긋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 지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주 떠올리게 된다면, 삶은 더 넓고 커지게 된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여름엔 바다로 가자. 파도에 등을 대고 지구를 생생하게 감각하자. 목 뒤의 긴장을 풀어 바다와 지구와 나와 너를 연결해보자.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들을 더 멀리 밀어내고 확장하여 넓은 바다를 닮은 여름을 보내자.



<사진 : okjam>

김민선 (33. 헤드헌터)



[짧은연재소설] 쪼다일기 제 1화 -쭉쭉이 작가

우연히 또는 운명적으로 잔치가 한창인 사교모임업장 앞을 지나게 되었을 때 일이다. 주말만 피하면 인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종종 산책 하던 뒷골목이었다. 미로를 찾듯이 골목을 산책 하던 중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 오는 저음에 이끌리게 된 것이다. 저음을 따라 미로의 끝에 거의 도달했을 때 쯤 묵직한 울림의 정체가 음악 소리임을 알게 되었다. 몇 번을 지나쳤던 건물이었다. 스쳐가는 눈길로는 쉽게 발견 할 수 없는 있는듯 없는듯한 입구 였는데 음악 소리가 아니였다면, 무엇보다 주변에 모여 담배 연기를 뿜어 내고 있는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멈춰 설 이유가 없는 풍경이었다. 음악소리 덕분에 호객행위도 친절한 안내도 없는 시커먼 직사각의 입구 앞에 서게 된 것이다. 가뜩이나 습한 날씨에 사람들이 무절제하게 만들어 내는 담배 연기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부유하는 길모퉁이에 서니 가슴에 오동이 쳤다. 적당한 긴장과 기대감이 들었다. 오금이 살살 떨리기도 했다. 그동안의 몇몇 도전이 있었지만 그동안의 시도는 오늘을 위한 연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더 망설일 필요는 없었다. 술병을 든 사람이 우두커니 서있는 나의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 보았다. 나는 초장부터 얼뜨기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짧은 기합과 함께 미로 끝에 나타난 다른 차원으로 연결되는 시커먼 문앞에서 낮게 부유하는 담배연기의 흐름을 따라 계단을 내려 갔다. 어두운 불빛 이었다. 언젠가 이런 풍경을 묘사한 시를 읽은 적이 있다 "죽음의 아가리" 라는 제목의 시였다. 지하실 속 비밀모임을 찾는 중독자의 파멸을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쾌쾌한 지하의 냄새로 인해 소환된 짧은 기억이었다. 죽음의 아가리로 들어 왔다고 생각하니 이 도전이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다. 긴 마성의 아가리, 목구멍을 단숨에 지나 단단히 닫힌 차원의 문에 당도했다. 오늘 만큼은 오로지 나의 순수한 의지로 손잡이를 당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꼼,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이를테면 연습경기 또는 살짝 열어 보고는 박스 미개봉이라고 우겨 반품하는 절차상의 오렁 같은 유도리로 안을 살짝 살펴 보고픈 마음이었다. 하지만 문이 생각보다 힘없이 활짝 열려서 다소 당황하게 되었다. 호기로운 마음과 살짝 간을 보고 빠져야지 하는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몸의 긴장과 엉켜서 문을 꽈당 활짝 열어 재낀 것이다. 이제 반품불가의 처지가 되어 마성의 위장 속으로 들어 갈 수 밖에. 다행히도 사람들은 무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각자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었다 . 나는 눈앞에 펼쳐진 생경한 광경 앞에 정신이 팔려 발이 삐끗 해서 숭구리당당숭당당이 되었는데이 역시 아무도 보지 못해 다행이기도 했다.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호기로운 태도로 일관하여 이 도전을 완수 하리라. 시끄러운 음악에 맞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무대위에 4인조 모습이 언뜻 보였다. 그렇지! 생음악의 현장이었다. 사람들은 마치 마성의 커다란 위장에서 꿀렁이며 소화되는 과정에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나도 곧 섞이리라 오늘 하루 생음악 앞에서 산산히 소화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형색색의 무작위한 인간들 사이에 껴서 하다 못해 숭구리당당 춤이이라도 춰 보고 싶은 기분이었다. 군중들 사이로 빨려 들어가려는 순간한 인간을 마주 하게 되었다. 첫번째 절차였다. 여러 도전이 있었지만 이 인간은 그전의 인간들과 다르게 상대해야만 했다. 권한을 나타내는 제복도 멍찰도 없는 인간이었다. 다만 그가 보낸 눈치를 통해 이 시설의 첫번째 관문임을 깨달았다. 대화를 통한 소통 대신 다른 암묵의 규칙이 있었던 것이었다. 인간만 상대하지 않는 다면 근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촬영장이나 이색체험을 하는 여가 시설을 두리번 거리는 관람객처럼 행동 하면 될 일이지만 나로선 알수 없는 어떤 절차를 앞두고 인간과 마주하게 된것이다. 흡사 우연히 열린 문틈으로 처음으로 집 밖을 나간 집고양이가 미로 같은 골목을 헤매다가 길고양이를 마주친 장면. 익숙하지만 낯선 두 고양이가 말없이 서로를 응시하는 장면. 마침내 긴 응시끝에 집고양이가 야옹~했지만 길고양이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난감함이라고 하면 설명이 충분할까? 나는 되도록 말과 행동을 아끼고 싶었다. 다른 환경에 길들여진 길고양이와 집고양이 처럼 나의 언어와 습관을 이 곳 사람들은 낯설어 했다. 다시 또 나만의 야옹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 온 것이다. <그래서 쪼다는 뭔데? 다음회에 계속…>

이주의 유튜브 추천

열대야엔 M.M.U

지난해 여름, 열대야도 잊게 만드는 공연을 선보였던 M.M.U 온라인 열대야 콘서트. 총 4회에 걸쳐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으며 김일두, 송인호, 갤럭시 익스프레스,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향니, 문선, 트레봉봉 겨울에서봄 8개 팀이 출연해 어쿠스틱, 일렉트로닉, 퓨전 민속,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다.
이 공연의 주최를 맡은 서대문구청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돼 문화예술 공연이 다시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응원의 메세지를 건넸다. 공연 중간에 등장하는 모래내 시장 속 상인과 손님의 모습엔 이곳이 사라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어 보는 이에게 어떤 향수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모래내 시장을 중심으로 홍제천, 궁동산등을 배경으로 매 회차 같은 장소지만 다양한 시선으로 촬영, 연출되어 공간을 재발견하는 재미까지 느끼게 해주었다.
M.M.U는 온라인 관객뿐 아니라 아티스트에게도 일상의 활력을 선사함은 물론, 코로나 시대에도 이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공연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여름도 어김없이 다시 찾아온 열대야, 지난 추억을 되새기며 M.M.U와 함께 이겨내 보는 건 어떨까?

다리밑에 까뽀에라와 뻐킹 매드니스

2021년 채널1969 라이브 온 시리즈 중 돈만스키 쇼가 채널1969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침내 공개됐다. 김오키 연출의 영화 <다리밑에 까뽀에라>의 최초 상영과 GV, 김오키 뻐킹 매드니스의 무대까지 펼쳐진 이 날의 공연은 그야말로 볼 것 들을 것이 넘쳐나 현장 관객의 혼을 쏙 빼놓았다고 전해진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게 아닌 돈만스키 쇼를 놓친 이들은 그날의 현장을 직관하는 듯 생생하게 담아낸 라이브 온 영상을 보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도록 하자. 이어지는 다음 순서는 누구일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도 묘미이다.



Hodori

<숨은그림찾기> 부엌칼 연필 옷걸이 바늘 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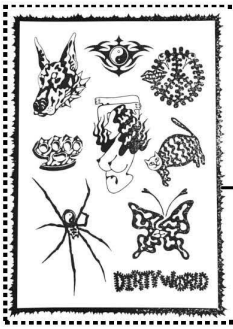
음반소식

Alegria Brasileira

디제이 모스피란 / Mospiran

-가격 : 15,000원
-시간 : 79분34초
-판매처 : 채널1969

브라질의 60~80년대 AOR, Bossa nova, Samba, MPB 음악을 담은 디제이 모스피란의 믹스셋. 코파카바나 해변으로 보내줄 엄선된 79분 34초 분량의 뮤직퍼레이드! ! 집합금지로 판매되지 못한 한정 판매분 5장이 채널1969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알싸한 터치로 손맛이 매운
핸드포크타투 맛집 !!!

더티월드타투

네오 트라이벌 작업도 합니다

인스타그램
@dirtyworld_tattoo
dm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YOUNG LONG

영상촬영 방송제작 방송송출
younglongkr@gmail.com

현대음악의 믹싱에 있어 컴프레서의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나 컴프레서는 작동원리와 개념을 이해해도 실제 믹싱에서는 어떻게 사용해야할지 감이 잘 안 오는 파트입니다. 이번 레슨에서 컴프레서에 대해 제가 엔지니어로서 쌓은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언더그라운드뮤직
라이브공연출장
록음반취입
녹음실 타디스
☎ 010)2595-6459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타디스 사운드 강좌 <컴프레서 편>

컴프레서는 다이나믹 계열 프로세서로 라디오 방송 중 순간적으로 큰 레벨의 신호가 들어올 때, 그 신호를 압축 시켜 안정적인 레벨로 송출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 후, 초창기 앨범 녹음과 믹싱을 하던 엔지니어들이 컴프레서의 작동에 음악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음악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개발 이유는 다이나믹 조절이지만, 레코딩이나 믹싱에 사용한 이유는 컴프레서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컴프레서의 사용은, 레코딩과 믹싱에서 다이나믹 조절 기능을 기술적으로 사용하시되, 언제나 음악적인 측면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컴프레서는 게인, 쓰레숄드, 어택, 릴리즈 이 네 가지 개념으로 작동합니다. 위 개념들의 작동원리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위의 개념들은 구글검색만으로도 수 많은 설명이 나오므로이지면에서따로 기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컴프레서들은 또한, 대부분 게인과 리덕션의 컬러감과 어택, 릴리즈가 작동하는 느낌들이 다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각자의 컴프레서들이 자신만의 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캐치하는 것은 음악적인, 즉 음색의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컴프레서 중 하나인 LA-2A 와 1176 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LA-2A 는 옵토 컴프레서이며 1176 은 FET 방식입니다. 옵토는 신호를 빛으로 바꾸어 그 빛을 감지해 게인리덕션을 합니다. FET 는 트랜지스터 회로를 사용하여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방식은 컴프레서의 반응 속도와 색채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더해 두 가지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VCA,Vari-mu,Discrete Class A 방식 등, 각각의 방식이 모두 각자의 색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컴프레서들을 어느 정도는 수학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느낌과 색채감은 사실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컴프레서, 잘 모르겠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DAW를 켜고 복각된 컴프레서들을 걸어보며 소리의 변화에 집중해보세요. 소리의 변화를 감지하고,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마음으로 집중하면 여러분도 믹싱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나 소리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은 곡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와 창의성을 모두 소리에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한참 소리만 듣다 보면 내가 무슨 음악을 만들고 싶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녹음실에 가는 것입니다. 녹음실 타디스에는 수많은 앨범과 뮤지션을 만나며 작업한 경험 많은 엔지니어가 있고, 여러분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을 소리에 대한 장인정신으로 더 빛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소리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음악에 집중하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 <음향기사 류호건>


<Neumann M149>


<Digital Clarity, Analog Warmth>

‘그놈은 멋있었다?’



안녕하세요!
코너 속의 코너 ‘그놈은 멋있었다?’ 의 리포터 이주현입니다.
오늘은 플링의 보컬 박동 씨를 만나보게 됐는데요.

Eastpak 제품을 이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동 이스트팩 그게 뭐예요?
캐나다에서 유학을 오래 하셨는데 한국 학교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박동 캐나다에는 같은 반 친구가 없습니다.
(쉬는 시간 반 친구들과 축구하고 그런 것. 캐나다는 학교가 빨리 끝난다.)
본명이 박동연 씨인데 예명을 박동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박동 옛날부터 친구들이 박동이라 불러서 그런 건데 딱히 예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세상 어딘가에는 계실 박서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동 그쪽에는 해가 지나요?
2주 뒤의 박동 씨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동 잘했다. 건강해라.

이상 그놈은 멋있었다?의 리포터 이주현이었습니다! 야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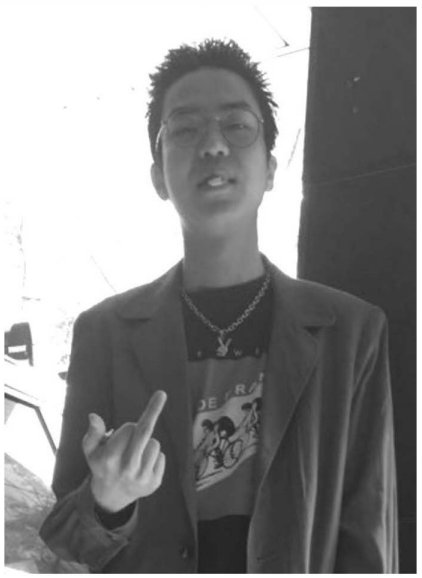

<인간 East Pak >


<동서/남북 친구들 >

이스트팩의 기원
1960년에 몬테 골드먼이 이스턴 캔버스 프로덕츠란 회사를 설립하고 미군을 위한 배낭을 생산했다. 그 후 1976년에 학생들이 군용배낭에 책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것을 본 몬테의 아들 마크가 아버지를 설득하여 일반인들을 위한 백팩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대학생들에게 대박을 터뜨렸다. 1979년에 가방에 ‘이스트팩’이란 브랜드명을 붙였다. 2021 현재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스트팩을 등에 메고 젊음을 만끽하고 있다.


어쌘틱 패디드 파커
정가 3만9천원

후루꾸 상담실



안녕하세요, 서른 두 살 인천사는 김희진입니다. 남편과는 5년 정도 만나고 연애 결혼을 했어요. 이미 서로 알 만큼 알았고 이만큼 편한 사람은 없겠다고 생각했지요. 결혼 후 1년 정도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니 결혼 전에는 없던 남편의 책임감도 듬직하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아침마다 연안부두에 가자고 그랬습니다. 저도 바다를 좋아하는지라 데이트도 하는 겸 자주 나가기도 하였죠. 남편은 멀리 있는 등대를 보며 늘 속삭이는 이상한 말이 있었습니다. “카이조쿠…” 저는 무슨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게 아닌지 걱정했지만, 집에서는 늘 똑같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지난달부터 남편이 갑자기 새우잡이 배에 타게 되었습니다. 큰돈을 벌어 오겠다며, 위험한 곳이니 마중은 나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떠났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습니다. 말렸어야 했을까요? 아직도 남편이 중얼거리던 그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저런… 남편분이 바다로 떠나셨군요.
노래 한 곡 남편에게 보내드릴게요,
로드 스튜어트의 아임 세일링!



로드 스튜어트
Roderick David Stewart

출생
1945년 1월 10일, 영국
데뷔
1969년 An Old Raincoat Won't Ever Let You Down

멋진인생
멋진인생을 삽시다
멋진인생이라 함은
건강한 몸과 마음
불타는 사랑과 고요한 평화
우리 강산 아름다운 강산
시퍼렇게 퍼렇게

후루꾸

상담 환영

해결사 이기철이
말끔히 해결해드립니다

제보처: 인스타그램
@used__boy

특별 부록

SPECIAL NEWS EDITION MUSIC CARD



㉠馬念先 & 9m88 - 你朝我的方向走来 ㉡TRANG YUE ft B RAY - THƯƠNG ANH ㉢One Click Straight - Manila ㉣FEVER - Ghost World ㉤甜約翰 - 留給你的我從未 Remix (feat. te 懷特) ㉥Pablo Cikaso - I Love U 3000 ㉦Kurosuke & Kittendust - Velvet ㉧Gelato - ไม่จำเป็นต้องรู้ ㉨ALLY - How To Love (feat. GRAY) ㉩Julia吳卓源、Jinbo、Kimberley - Re:PLAY ㉪Bảo Trâm - Cơn Mơ Ngọt Ngào ㉫Claudia Tan & Irwinandfire - Bodies ㉬Julia Wu - 獵接 ㉭Diskoria, Laleilmanino, Eva Celia - C.H.R.I.S.Y.E. ㉮Rich Brian X 청하 (CHUNG HA) - These N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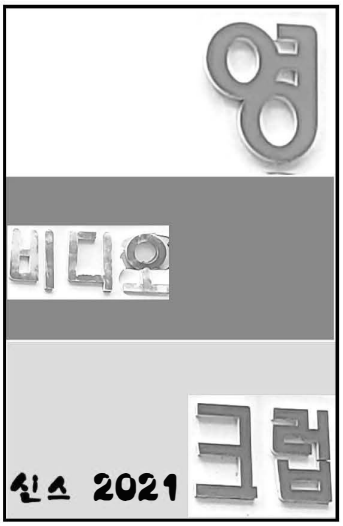
아시아뮤직파티 미미팝스 X 야호!멋진인생
디제이 미미의 청량한 아시아 음악 믹스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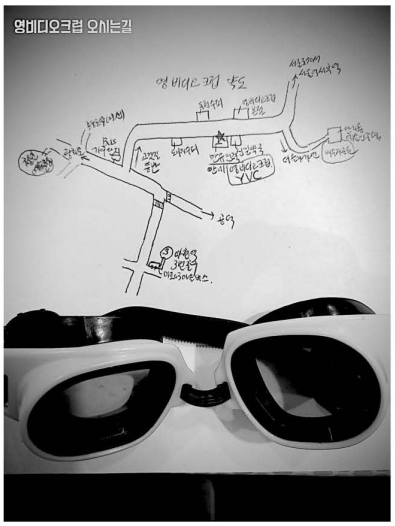
미미 MIMI
MIX 20210716

뮤직카드
Special News Edition

영 비디오 크럽 (YVC)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 스펙타클 상업자본 영화제작상영 시스템과 유튜브 독점 채널에 반대하는 곳으로서 마포구 손기정로 52 만유인력 책방 한켠에 마련된 크럽입니다. 현대 영화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영-비디오를 제안하며 참여작가와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충성스럽고 정성스럽게 운영될만한 크럽입니다. 본 크럽에서는 영-비디오를 보시다가 갑작스레 흥분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어도 전혀 상관없을 정도랍니다. 1회 관람료 1000원이며 발생되는 수익금을 참여작가 n명에게 1/n으로 분배하는 시스템입니다. 조만간 영 비디오 크럽 예약페이지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현대 영화와 유튜브에 질려 있는 화난 그러나 멋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공드린 라구 떡볶이 & 누들

오직 신선한 자연재료만으로
공들여 만드는 라구 소스

주문은
쿠팡이츠

대표 양고기라구떡볶이 (2~3인분) 17,000원
메뉴 라구우동 10,000원 /라구소스 6,000원

가좌역 3번 출구
모래내시장통



#여기저기룰루랄라 여름 #깻잎냉모밀 투어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7.30-31	부산 오방가르드	
8.7-8	서울 솔금솔금	
8.14-15	대전 올라탱고	씨없는수박김대중.후시딜라
8.21-23	통영 남녘부엌남주	
8.21-22	삼문당커피로스	시옷과바탕, 천용성
8.28-29	제주 20세기 소년	씨없는수박김대중
9.1-2	광주 쿠아밸런스	
9.5-6	전주 멜브	정우

옛날 말씀

무소유의 실천가 욕쟁이 춘성 스님의 기행

옮긴이 / 박종현 <남가좌동, 40세 남>

이 스님이 유명한 건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의 제자인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래의 기행들과 육두문자 설법 때문. 그렇다고 그게 다 해괴한 것도 아니고 해학적이면서도 솔직담백한 진리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 군사독재 시절, 춘성 스님이 통금을 어기고 길을 걷고 있었다. 스님을 발견한 경찰이 정체를 물으니 중대장이라 답했고, 어리둥절한 경찰이 다시 물으니 내가 '중들의 대장'이라며 무심하게 지나갔다고 한다. (춘성은 볼자들이 해준 새 양복을 입고 시내에 나갔다가 걸인들에게 옷을 벗어주고 속옷 바람으로 한밤이 되어서야 절로 돌아오는 일도 흔하였다고 한다.)
2. '현애철수장부아'(縣崖撤手丈夫兒 절벽에서 손을 놓으니 대장부로다.)라는 주제로 법문을 설파할 때였다. 그런데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만 생각한 어느 제자가 "백척간두에서 다시 한 발을 더 내디디면 그다음 경계는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야 이 새끼야. 내가 떨어져 봤어야 알지."라고 답했다고.
3. 춘성 스님은 생전 서랍이든 문이든 잠그지 않았다. 걱정된 제자 하나가 스님에게 "스님 그래도 잠가야죠."라고 묻자 "야 이 새끼야. 내가 애미 애비 다 버리고 중이 되었는데 뭐가 중요한 게 있다고 잠그겠냐?"하셨다.
4. 어느 날 지하철을 타던 중 "우리 주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며 전도 중인 맹렬 기독교 신자를 향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아침의 내 좆밖에 없다. 내가 살면서 죽었다 부활하는 것은 내 좆밖에 보지 못했다. 늬들이 말하는 "부활"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으니 내 좆을 믿어라!"라고 일갈하였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스님의 말에 빵 터졌고, 그 광신도는 그 말에 당황해하며 그냥 가버렸다고 한다.
5. 스님께서 입적하실 무렵에 제자 승려들이 만약에 사리가 안 나오면 신도들이 실망할 텐데 어떡하냐고 묻자 스님은 "야 이 씨발자식아. 내가 신도를 위해서 사느냐?"고 하셨다.
6. 6.25 전쟁 중에는 혼자 망월사를 지켰고, 전쟁이 끝나 절을 보수하기 위해 산에서 나무를 베던 중 산림법 위반으로 의정부 영림서에 잡혀가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이봐, 당신 본적이 어디야?"라고 묻자, 스님이 당당하게 "우리 엄마 보지다!"라고 답하고 당황한 경찰이 "아니, 당신 어디서 태어났냐고!?" 라고 다시 묻자, "우리 아빠 자지에서 났지"라고 답했다고 한다. 서장은 조서 작성을 포기하고 풀어주었다.

한평생을 철저한 무소유와 일의일발(옷 한 벌, 밥그릇 하나)만으로 본디 자유롭게 살다가 봉국사에서 입적(入寂)하였다. 화장한 재를 몽땅 바다에 뿌리라고 유언하였으므로, 제자들은 그의 사리까지도 모두 서해에 던졌다. 그 사리는 매우 크고 영롱하였다고 전한다.



춘성 스님 (1891 ~ 1977)
직업 스님
국적 아버지 이인오
어머니 밀양 박씨

메아리 코너

야호! 멋진 인생

안녕하세요. 성남시에 살고 있는 독자 권소희 입니다.
뜨거운 날씨에도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힘한하게 쏟아졌다가 금세 사라지는 빗줄기와
우산에 내리쬐는 태양빛에
내가 알던 여름이 아닌 것 같아 서운해 하다가
'어느 여름은 내가 다 알았었나...' 생각하고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답니다 ^^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찾아올 우리의 계절들!
함께 신나게 놀고 싶네요....!
야호! 멋진 인생의 창간을 축하하고 많이 응원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 ♡
정말정말
(아름답게 나는 내비 사진 한 장 덧붙입니다 ~
우리의 미래 ~)

21. 07. 23. 금요일에...



안녕하세요. 케이키에요! 저는 지금 퀼른행 비행기에 탑승중이에요.

그동안 음악을 하며 즐거웠던 날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 많은 시간을 채널1969에서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악과 함께 멋있고, 유쾌하고, 따뜻한 사람들을 알고 지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한텐 너무 큰 선물이에요!

저는 또다른 즐거운 시간을 위해 잠시 떠나요. 많이 배웅해주고 응원해준 덕분에 슬플 틈도 없이 갑니다. 독일에서도 이렇게 좋은 공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설렘이 가득해요.

무사히 잘 지내다 돌아올게요. 다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 다들 사랑합니다 <3 너무 늙지 말고 계세요!



여!름!반갑습니다!전얼마전에소희랑계곡물에들어갔었답니다!어릴때바다에빠지고는계속물을무서워만하고살았었는데이번에는신기하게편안한마음이들어한참을물속에서잘만놀았어요나중에는나름대로의재미도찾아서돌아가는게아쉽기까지했었는데어쩌면두려움이라는게결국은고집이나마찬가지다생각했어요아직도두렵지만요그것도고집일거같아요그렇게생각하는거만으로도조금괜찮아졌어요 //// 아주작은두려움때문에어렸을때에이이건아얘나는영아닌가보다하고굳게닫아놓은많은문들이궁금해요생각나는그런문이있다면여러분도올여름에열어보세요 //// 와!여!름!멋!진!인!생!입니다! 어떤친구들은물에뛰어들겠다고일년내내여름만기다린다는데참내가피우고있는모든고집불통그냥웃어버릴일들일지도? ^ㅇ^ // 오늘하루도축하합니다!어머나나는오늘도살아서말했네요!. 준.

[모집공고]

차네마네훗볼크럽

할라다가 말라다가
차네마네 차네마네
찰라다가 볼라다가
차네마네 차네마네
차차 차버려 이걸 봤으면
미루지말고 차버려

차네마네 훗볼크럽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가입문의 @kockabiiilly



안녕하세요
망원동에 살고 있는 담배 가게 아가씨 '링고'입니다!
저 링고는요 동교동 삼거리에 수제 담배 가게에서 매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제 담배 가게란? 시가, 파이프, 롤링 타바코 등등 여러 가지 수제 담배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 입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여자분이 이런 곳에서~?', '진짜 담배 피우세요~?', '제품 외우기', '외국인과의 소통' 등등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저 스스로 많이 강해졌는지 이젠 크게 힘들지가 않은 거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더 힘든 일들은 많으니까요!
여기서 일하면 좋은 점은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 놓거나 한다는 자유로운 점? 요즘은 여름에 어울리는 음악 혹은 그날에 어울리는 음악으로 틀어 놓으면 손님들도 기분 좋고 저도 좋고 음악 관련해서 관심 있는 손님들과의 소통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코로나 시기여서 그런지 요새 제가 일하는 공간은 손님들 만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 가는지 종종 여기서 모이네요 (하하하)
2호 구독자분들 중 이 공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놀러 오세요!
올여름 무사히 넘기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여름 하면 생각나는 음악 추천할게요! 링고의 신청곡은 childish gambino - feels like summer 그럼 안녕!



취미 생활에 진심인 재희의
야호! BIG EVENT(:.:)
예쁜 돌멩이와 구슬로
하나뿐인 팔찌 또는 목걸이 만들어 드립니다
야호! 멋진인생 애독자
파격 할인가
무료 / 공짜 / FREE
컬러보기 대환영

안녕하세요 매 주말마다 라이브 클럽에서 밤을 보냈던 최호준 이라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도 몇몇 파티들이 열리기는 했다만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웠던 마지막 밤을 생각해보면 2020년 1월 17일이 저에겐 마지막 밤이었더군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 이후에 들어갔던 직장은 이제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락/메탈음악을 좋아하여 항상 그 음악들과 함께 보냈던 휴일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공간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현실을 멀리서 지켜 볼 수 밖에 없어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얼른 모두의 락스피릿으로 힘을 모아 이 현실을 이겨냅시다!!
화이팅!



투고.제안.제보.광고
park_ain@naver.com

다 읽은 신문지를 물에 적셔서 냉동실에 얼리면 아이스박스 보냉제로 사용할 수 있다더라

비 매 품

구성, 편집 : 야호!멋진인생 편집부
제작, 발행 : 채널1969